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

본 자료는 2022년 대구시민재단 청년사회활동가 양성사업을 통해 인재 채용을 위한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실무와 근무환경에 대한 간이안내자료입니다.

[근무]

1) 근무기간 : 근로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

2) 근무요일 : 월~금 또는 화~토 09:00~18:00 (주 40시간) ※합의하에 변경 가능

3) 모집인원 : 2명

4) 급 여 : 기본급 월 1,924,890원 + 식비 75,000원 (익월 10일 계좌입금)

5) 위 치 :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1862 삼익신협 지하1층

[지하철: 내당역5분, 반고개역7분 버스: 반고개2(정류장) 노선: 509,156,323-1,527,성서2,급행6,250,250-1]

[실무]

▶ 디자인

- 디자인물 제작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수집
- 일러스트, 포토샵, 인디자인 등의 디자인툴 활용을 통한 제작
- 컨텐츠 및 프로그램에 활용 목적의 그래픽 제작(홍보물, 책자, 굿즈 등)

[관련학과 : 시각디자인, 편집디자인, 그래픽디자인 등]

▶ 메타버스

- 메타버스 내 컨텐츠 개발을 위한 맵 편집(포토샵 활용)
- 메타버스 내 비대면 교육 운영 지원 및 관리
- 온라인플랫폼 방송 송출 관리 및 운영
- 교육 녹화 및 영상 관리/편집

▶ 교육

-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자료 조사 및 수집
- 사용자의 니즈와 현상황에 실현 가능한 교육안 기획 및 운영방안 구상
- Office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교육안 제작 후 검증과 교육 프로세스 확립
- 운영방안 및 교육안을 통한 교육 시행 및 운영 관리



사람들은 누구나 메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

메세지는 끊임없이 만들고 공유되어 또 다른 메세지를 만들어냅니다.

우리는 메세지를 만들고, 공유하고자 하는 이를 메신저, 이들을 메신저 커뮤니티라 부릅니다.

메세지팩토리는 건강한 나 $Me \cdot 사회Social \cdot 조직Group을 위한 메세지를 만들고 전달합니다.$

시민들이 공익활동을 통해 자신의 메세지를 찾고, 다른 사람들에게 메세지를 전달하는 **건강한 민주시민**이 되기를 원합니다. (Me)

민주시민은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입니다.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**지속가능한 사회**가 되기를 원합니다. (Social)

다양한 지역의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기에 모임 및 단체를 만들거나 기업을 만들어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. 하지만 각자의 다른 목표와 가치관 등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 갈등이 발생합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통해 **지속가 능한 공동체**가 되기를 원합니다. (Group)

메세지팩토리는 참여와 소통, 연대의 경험을 통해 건강한 나 · 사회 · 조직을 위한 서비스(교육, 행사, 활동, 기록)를 기획하고 디자인합니다. 또한, 이러한 서비스를 잘 운영하기 위해 공간(D1862)을 운영합니다.

D1862는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62(Daegu Dalseo-gu Dalgubeol-daero 1862)에 위치한 메세지팩토리에서 일하는 청년들과 18세 청소년, 62세 시니어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. 이를 통해 두류동, 달서구, 대구가 변화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.

D1862는 삼익신용협동조합 소유의 건물로, 삼익신용협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A동 지하 1층과 B동 지하 1층에서 3층까지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, 아래와 같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[A동 B1F] 건강한 나 · 사회 · 조직을 위한 메세지를 만들고 전달하는 < 메세지팩토리 >

[B동 B1F] 사람들의 메세지를 담아내는 공유 스튜디오 〈 스튜디오:D 〉

[B동 1F]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샐러드 & 샌드위치 카페 〈 Oh! Sally 〉

[B동 2F] 대구환경교육센터가 입주하고 있는 공간 겸 메세지를 공유하는 공간 〈 S.U.M 〉

[BS 3F] 사람들이 가진 메세지를 다양한 예술문화활동(play)을 통해 표현하는(display) 문화예술교육공간 〈 D's play 〉 "D"의 의미

- 대구(Daegu), 달서구(Dalseo-gu), 두류동(Duru-dong)에 위치한 공간(D1862)에서 다양한 세대들과 어우러져 활동을 한다.
- 디자인 씽킹(Design Thinking)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창작 활동을 펼친다.

메세지팩토리는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**메타버스**, ZOOM,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메세지팩토리가 가진 콘텐츠와 서비스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.